“업 지으면 언제나 받을 준비하고 감사하게 갚으세요”



법당으로 들어온 대연 거사는 혜암 스님 사리가 봉안된 보각 앞에서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었다. 바람이 부는지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댕그랑 댕그랑 소리를 냈다. 풍경소리는 문득 대연 거사에게 해인사를 떠올리게 했다.

2001년 12월 30일. 그날 해인사 여행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대학의 전임강사 직을 버리고 며칠 동안 빈둥거리던 중에 혼자서 떠난 다분히 충동적인 여행이었다. 두 번째로 내려가는 해인사 행이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심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안에 혜암 스님을 인터뷰하는 기자친구를 따라 갔었고.

대학을 떠나려 하자,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선배 교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인생의 분기점에 와 있구나 하는 직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2학기 동안 내내 고민하다가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사표를 던졌던 것이다.

그때 그의 가방 속에 든 물건은 읽다만 소설책 한 권, 칫솔 한 개가 전부였다. 승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행선지는 해인사로 정했다. 2년 전, 기자친구와 함께 뵀던 혜암 스님의 한 마디가 줄곧 뇌리를 떠나지 않아서였다.

“업을 지어놓으면 무량겁을 지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받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 하나 갚을 시간이 됐다고 하면 나로서는 즐겁고 기쁠 때구나 하고 생각할 일밖에 없습니다. 내 빚 갚을 시간이구나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돌려야지 사람을 원망하고 또 자기가 당한 사고를 재앙으로만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혜암 스님의 한 마디는 절절했다. 2년 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좀 전에 들었던 말처럼 늘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그는 젊은 원주스님에게 방을 배정받고는 해인사라는 절 이름을 나름대로 ‘불법의 바다(海)에 자신의 마음을 도장(印) 찍듯 바치는 절(寺)’이라고 해석하며 몸을 누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니 문득 마음이 편안했다. 혜암 스님의 당부대로 자신의 고통을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원망하는 마음은 순간적이나마 사라졌다.

그래서인지 하룻밤을 단 한 순간도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을 잤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처음 맛보는 꿀맛 같은 숙면이었다. 절이 고향 집 같고, 할머니 품 같았다. 어린 시절 그는 할머니의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 밤 가야산 솔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침이 돼 풍경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공양 시간이 서너 시간이 지나버린 뒤였다. 창호를 투과한 햇살이 물너울처럼 방바닥에 어른거렸다. 그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법당 마당으로 나갔다. 원주스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벌써 한두 명씩 짝을 지어 경내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해인사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 절을 떠나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곤 했다. 일주문 계단을 내려서면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왼편 비봉산 산자락에 박힌 원당암의 가람들이 홀연히 눈에 들어왔고 왠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원당암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주차장으로 느릿느릿 걷는 동안 느닷없이 범종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늦은 아침에 범종소리가 가야산 골짜기를 울린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매표소 쪽에서 바삐 걸어오던 한 스님에게 묻자, 스님은 ‘종정스님께서 열반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합장했다. 종정스님이라면 원당암의 혜암 스님을 가리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되돌아 올라갔다. 앞서가는 스님을 따라 걸으려 했지만 스님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뒤처졌다. 아마도 스님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혜암 스님의 문도스님이 분명했다. 일주문에는 벌써 가사를 걸친 해인사 대중스님들이 노스님들 뒤에서 2열로 도열해 있었다. 원당암 미소굴에서 운구 될 혜암 스님의 법구를 맞이할 준비였다.

이윽고 혜암 스님의 법구가 일주문에 도착하자, 해인사 대중스님 모두가 앞서가는 법구를 뒤따라갔다. 그도 맨 끝에 서서 다시 경내로 올라갔다. 법구는 경내 청화당으로 안치됐고, 경내는 어느새 스님들로 북적거렸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 장례절차와 조문객들의 문상을 준비하는 스님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걸림돌 같았다. 그제야 그는 혼자라는 고립감에 빠졌다. 2001년 12월 31일의 추위가 뼛속을 파고들었다. 청화당 마당의 언 모래들이 밟힐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가는 해의 칼바람이 목덜미를 얼게 했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일주문에서 본 원당암을 잊지 못했다. 혜암 스님이 입적하시는 동안 왜 자신은 일주문에 서 있었고, 원당암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무엇을 인지하고서 그랬는지 불가사의했다. 그 일을 우연으로 돌리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자신이 무책임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는 일 년 동안 내내 그 기억을 떠올리다가 혜암 스님 1주기가 돼 다시 해인사를 내려갔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었다. 입산 출가할 각오로 내려갔다. 오후 4시쯤 막상 원당암에 도착했을 때는 혜암 스님 1주기 행사가 다 끝나고 난 후였다. 원주실이 있는 요사채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 다른 가람들은 썰렁했다.

그는 원주실로 들어가 원주스님에게 차를 대접받았다. 나중에 원주스님의 법명을 알았는데 그가 바로 각안 스님이었다. 각안 스님은 무슨 말 끝에선가 자신이 혜암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야기했다. 혜암 스님 1주기를 보내면서 은사스님이 생각나 그런 것 같았다.

“저에게는 일하는 가운데 법문을 다해주셨습니다. 돌 하나 놓고 나무 한 그루 심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마음 씀(用心)을 이야기해 주셨지요. 잘못된 부분은 어떤 시간이 됐건 고쳐야 한다, 그 순간을 미루면 그만큼 나태함이 생긴다고 경책하셨습니다. 일하는 동안 옛날에 생활하시던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중놀이 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출가 전에 행자생활이 힘든 해인사에서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봐야 군대보다 힘들겠냐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는 동안 아는 분에게 우리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스님이 깐깐한데 버텨내겠느냐고 걱정도 했지만 사전연락 없이 당시 선방에 있는 부방장실로 찾아갔지요. 뵙는 순간 큰스님이라 해서 뭔가 압도할 것 같았는데 왜소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유월 날씨가 더웠는지 우리스님께서는 장삼을 벗은 채 소매가 칠부 정도 되는 얇은 옷을 입고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떨어진 양말 뒤꿈치를 전구 알에 끼워서 꿰매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육십 대인데 아이 같은 천진한 모습이었지요. 처음 절할 때는 큰스님이라고 해서 겁이 났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부방장실로 데리고 간 분과 한참 얘기하고 나더니 ‘저 처사는 누구요’ 하고 물었고, 그제야 그분이 ‘출가하려고 해서 큰스님께 소개시키려고 왔습니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우리스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행자생활을 하되 부방장 스님을 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행자생활 끝내고 그때 내 상좌가 되거라. 행자생활도 하지 않고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 행자생활이 힘들어서 도망친 예도 빈번하고, 큰스님 상좌로 들어왔다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중이 생길까봐 배려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말을 꿰매시는 천진한 도인의 상(相) 속에서도 중노릇의 기본을 철저하게 강조하신 스님의 진면목을 그때 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각안 스님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부러움 같은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스님, 저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큰스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출가생활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도 그는 출가의 결심을 꺾지 않았다. 해인사 종무소 내려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일어서지 않을 듯하자, 각안 스님이 원주실 보관함에서 테이프를 십여 개 꺼내와 내밀었다.

“우리스님 법문 테이프입니다. 날마다 들어보시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는 자신의 결심을 더 주장하지 못하고 싱겁게 원주실을 나와 해인사 종무소로 향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의 출가의지를 꺾게 한 노스님을 만난 것은 원당암의 가파른 길을 내려와 무생교(無生橋)를 막 건너갈 무렵이었다.

선풍도골(仙風道骨)의 노스님은 올라오는 중이었고, 그는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다. 노스님은 걸어오는 것이 힘든지 다리 난간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무생교 밑으로는 바위 사이로 계곡물이 차갑게 흘렀다. 노스님이 그를 불렀다.

“젊은이.”

“스님, 부르셨습니까.”

“출가하고 싶은가.”

노스님이 밑도 끝도 없이 던진 질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내심 놀라면서도 짐짓 그렇지 않은 채 말했다.

“스님,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게. 젊은이는 출가하고 싶어 원당암에 온 것이야. 난 행색을 보면 알 수 있어. 내 밑으로 출가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어야지.”

그제야 그는 자신의 몰골을 돌아봤다. 구두는 먼지가 묻어 더러웠고, 며칠째 다림질을 하지 않은 바지는 구깃구깃했다. 수염도 깎지 않은 지 이틀이 지나 있었다.

“스님, 출가하고 싶습니다.”

“아닐세. 출가하지 않고 도인 되는 방법이 있어.”

“가르쳐주십시오.”

“지금 다시 원당암 미소굴로 올라가 혜암 스님의 영정 앞에서 맹세하게. 스님처럼 절대로 눕지 않고 장좌불와를 하겠다고. 출가하지 않더라도 장좌불와만 할 수 있다면 혜암 스님처럼 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네.”

“스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젊은이가 보다시피 나는 지금 여기 쉬고 있는 중이네.”

그때 그는 장좌불와만 한다면 도인이 된다는 말에 출가하려던 마음을 슬그머니 접어버렸다. 그는 그 길로 미소굴로 올라가 혜암 스님 앞에서 ‘절대로 방바닥에 허리를 눕히지 않겠습니다’고 맹세했다.

지금도 대연 거사가 장좌불와를 하는 것은 그때 그 노스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대연 거사가 법당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각안 스님이 해인사로 떠나고 난 뒤였다. <계속>

> “출가 하지 않아도 장좌불와 수행하면 도인 됩니다”


그림 · 최문정

혜암 스님 원적 후 출가결심했던 추억 떠올려
선풍도골 노스님 한마디에 지금까지 장좌불와

